

영국 국립자연사박물관

유럽 최대 ... 표본 6천8백만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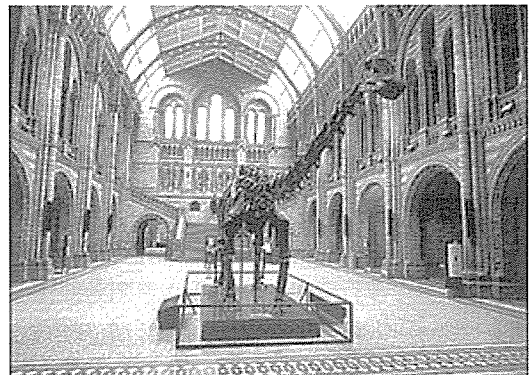
런던의 사우스 켄싱턴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영국 '국립자연사박물관(The Natural History Museum)'은 유럽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의 하나이다. 1753년 의사이며 수집가였던 슬로안(Sir Hans Sloane)의 다양한 수집품으로 전시를 시작한 영국 자연사박물관은 현재 약 6천8백만점 이상의 자연사 표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수만 해도 3백명이 넘는다. 이 박물관은 '공룡(dinosaur)'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고생물학자 오웬(Richard Owen)의 희생적인 노력과 의회의 협력으로 12년간의 공사 끝에 1881년 개관하였다. 1963년 자연사박물관이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으로부터 분리된 후, 1986년에는 바로 옆의 지질박물관과 통합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자연사박물관 근처에는 영국 국립과학관(Science Museum)과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이 자리잡고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고 볼거리가 풍부하여 매년 수많은 관람객들이 이 곳을 찾고 있다.

1881년 개관 ... 연구원 3백여명

영국 국립자연사박물관은 크게 '생명관(Life Galleries)'과 '지구관(Earth Gallerie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명관은 디자이너의 이름을 따서 'Waterhouse'라는 애칭을 갖고 있다. 생명관의 벽면은 적갈색의 테라코타 타일로 마감되어 있으며, 스코틀랜드산 현무암 기둥이 받치고 있는 넓은 현관과 아치형의 중앙홀에 들어서면 로마네스크식 건축양식의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다. 본관이라 할 수 있는 생명관은 20여개의 전시 주제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전시코너마다 평균 30분 정도가 소요될

만큼 풍부한 표본과 상세한 설명을 갖추고 있다.

1층 중앙홀에는 26m 길이의 초식공룡 디플로도쿠스(*Diplodocus*) 골격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붙잡는다. 또한, 중앙홀 좌우측 벽면에는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을 상징하는 다양한 현생 동식물과 화석생물의 형상들이 양쪽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중앙홀 좌측에는 고비사막에서 발굴한 공룡화석 뿐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듯한 티라노사우루스(*Tyrannosaurus*)의 동작모형이 있는 '공룡' 코너와 인체의 구조 및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는 인체코너(Human biology), 그리고 오늘날 가장 큰 포유류로 알려진 청고래(blue whale)를 비롯하여 스밀로돈(*Smilodon*, 절멸한 호랑이), 돌고래, 북극곰 등을 볼 수 있는 포유류코너가 있다. 한편, 중앙홀 뒤쪽으로는 천장에 18m 길이의 오징어 모형과 암모나이트 등이 있는 '해양무척추동물(marine invertebrates)' 코너와 어류, 양서류 및 파충류코너가 있으며, 우측에는 1억8천만년 전에 임신상태에서 화석화된 어룡(*Ichtyosaurs*)이 인상적인 '해양파충류화석' 코너와 대형 전갈모형을 비롯한 희귀 곤충 표본들이 있는 '절지동물(Creepy crawlies)' 코너가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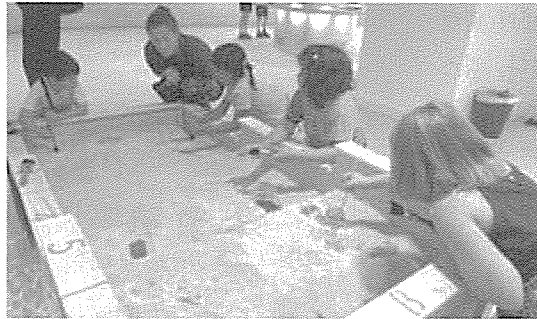
생명관의 중앙홀 내부

1881년 개관된 영국의 국립자연사박물관은 런던에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큰 박물관중의 하나이다. 6천8백만점 이상의 자연사 표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연구원만도 3백명이 넘는다. 이 박물관은 생명관과 지구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전시관을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지구관 입구의 조각상들

생명관의 2층에는 진화론자 다윈(Charles Darwin) 및 동식물의 진화에 관한 자료들을 전시한 '종의 기원' 코너, 3천점 이상의 광물이 전시되어 있는 '광물' 코너, 수백점의 운석을 갖고 있는 '운석' 코너, 오랑우탄, 원숭이, 침팬지 등을 볼 수 있는 '영장류' 코너 및 '식물' 코너로 이루어져 있다. 이밖에도 지하층에는 7~14세의 어린이들을 위한 '탐구관(Investigate Room)'이 있다. 탐구관으로 내려가면 가장 먼저 살아있는 동식물로 이루어진 '정원(courtyard garden)'을 지나게 되며, 'Living things' 코너에서는 계절별로 새로운 동식물을 접할 수 있다. 또한 'Sticky wall' 코너에서는 어린이들이 인체 및 동물의 골격을 맞추는 퍼즐을 즐길 수 있으며, 화석발굴코너와 표본실에서는 아이들이 모래 속에 묻어 놓은 화석들을 발굴해 보거나 이 곳의 연구원들이 수집한 식물 표본들을 직접 만지고 관찰하면서 탐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탐구관에서 화석을 찾고 있는 어린이들

(Restless surface) 코너, 지질시대 동안 생물의 진화과정을 보여주는 '생명의 시작(From the beginning)' 코너, 아름다운 보석과 광물들을 전시한

'지구의 보물' 코너 및 '지구의 오늘과 내일' 코너는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가장 인기를 끄는 공간이다. '야생식물원(Wildlife Garden)'에서는 런던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수백종의 야생화를 비롯하여, 각종 새·잠자리·나비 등을 만날 수 있으며,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 하루에 2회씩 소그룹 단위로 이 곳의 식생과 곤충 등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약 80여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이 이 곳에서 자라고 있는 동식물들과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를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 국립자연사박물관은 특별전시관을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받지 않으며, 전시관에는 영어 이외에도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일어로 된 안내 팸플렛이 준비되어 있다. 이밖에도 유아 기저귀 교환실 같은 편의 시설과 서점, 기념품 매점, 식당 및 카페 등 관람객들을 배려한 다양한 부대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㉟

특별전시관 제외 입장료 무료

지구관 입구에 들어서면 네개의 각기 다른 조각상들을 만나게 되며, 매우 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철, 아연, 구리로 만든 지구본의 내부를 통과할 수 있다. 지구관에서 가장 재미있는 전시물은 지진과 화산을 설명하는 '지구 내부의 힘(The power within)' 코너인데, 일본의 슈퍼마켓을 복원한 지진체험관에서 관람객들은 지진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또한, 히말라야산맥의 형성과정과 지각의 풍화·침식과정을 재현한 '지표면의 변화

李貞九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연구실 연구사>